

1장 정치

● 정치학 -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과 정치학의 관계

: 플라톤은 이상주의적 국가론을 주장한 데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실현 가능한 최선의 형태로서의 국가를 주장하고 있다.

: 정치학의 목적은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에서 요구하는 ‘알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나 뒤에 실제로 행동하는 데 있다. 이때 실천하고 실현되어야 할 것은 인간에게 선한 것, 곧 행복이다.

선한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은 인간의 생활을 규제하는 강제력을 지닌 선량한 법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행복의 실현이라는 윤리적 과제가 개인의 차원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기초를 둔 국가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폴리스 구성의 최소 단위는 가족

: 인간은 자연에 있어(본성적으로)폴리스적 동물이다(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동물이다.)

재산은 가족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한 기반이다. 이러한 재산이 사유재산제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폴리스에는 ‘선량하게 살기위해서’라는 목적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 형태의 분류와 이상 국가의 모습

: 플라톤은 가족의 해체와 사유재산의 폐지 그리고 처자 및 재산의 공유를 통해 국가의 통일을 달성하고자 했다. 처자의 공유는 인간의 자연적 정서를 해치는 것이며, 사유 재산의 폐지를 수반한 가족의 해체는 국가의 자연적 기반을 파괴하고 오히려 국가의 통일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론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 형태로 왕제,귀족제, 다수가 참여하는 폴리티아를 꼽았다. 이러한 국가들이 타락한 형태로 참주제, 과두제, 민주제를 거론했다. 참주제는 독재자 한 사람의 이익을, 과두제는 부자의 이익을, 민주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귀족제를 가장 이상적인 국가 형태로 간주했으나, 현실주의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실현 가능한 최선의 국가 형태로 중산적인 시민들에 의한 폴리티아를 추

천했다.

문제점

: 아리스토텔레스는 선량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폴리스가 실시하는 교육방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노예의 존재나 부인의 종속적 지위를 자연의 본성에 알맞은 것으로 긍정하고 있는 점등은 시대적 제약을 벗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종적 행복이 관념적 생활을 통해 실현된다고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비실천적인 개인주의 윤리, 곧 세계시민주의를 훨씬 앞서 예고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